

뉴스 라운드업

- 국제유가 호르무즈해협 통항 협상 난항 우려에 5%대 급등, WTI 배럴당 82.13 달러 마감
- 미 국채 금리 전구간 상승, 10 년물 4.705%(+5.6bp)·2 년물 4.243%(+4.4bp)로 커브 베어스티프닝
-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파 발언에 9 월 금리인상 기대 재부각, 뉴욕증시는 소폭 조정(S&P500 -0.06%, 나스닥 -0.32%)
- 엔비디아, 아폴로·블랙스톤 등과 5,000 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조달 컨소시엄 추진

호르무즈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위험자산은 소폭 조정에 그쳐 시장의 안일함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간밤 뉴욕장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제시한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방안에 대한 기대가 미국 측 추가 양보 요구로 흔들리면서 WTI 가 5.05% 급등해 배럴당 82.13 달러로 마감했다. 다만 그 여파로 뉴욕증시가 받은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 S&P500 과 나스닥은 각각 0.06%, 0.32% 내리는 데 그쳤고 유럽 스톡스 600 은 사실상 보합(+0.03%)이었다. VIX 가 3.76% 오른 15.45 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급등이라는 재료치고는 시장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우스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같은 밤 채권시장에서는 매파 재료가 더 뚜렷하게 가격에 반영됐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맥이 "지금 이 금리를 올릴 때"라며 점진적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는 5.6bp 오른 4.705%, 2 년물은 4.4bp 오른 4.243%로 마감했고 2 년물-10 년물 스프레드는 46.2bp 까지 벌어지며 커브가 베어스티프닝됐다. 이는 연방기금선물이 반영하는 9 월 금리인상 확률(약 51~52%)과 맞물려, 연준이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 경로에 있다는 하우스의 정책오류 프레임과 부합하는 흐름이다. 독일 10 년물 금리도 5.8bp 올라 대서양 양안에서 비슷한 되돌림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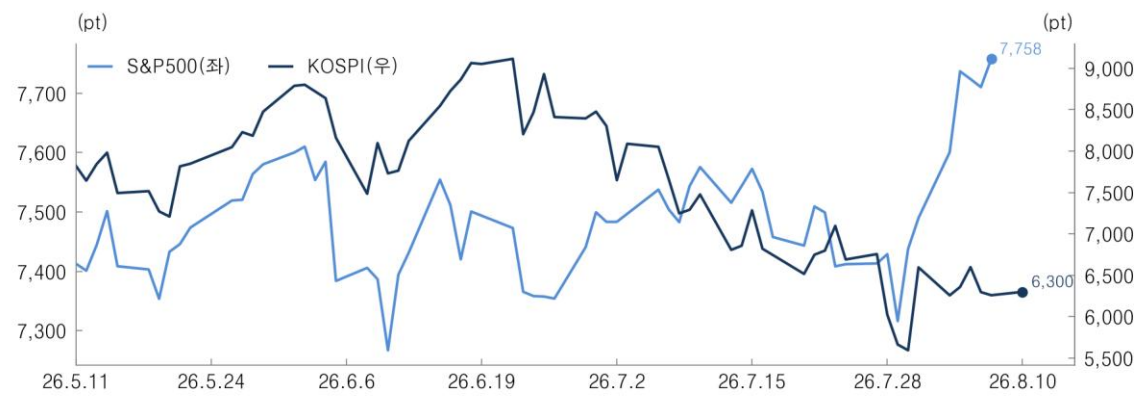
달러인덱스는 0.20% 오른 99.81 로 강보합 마감했고, 엔화는 로이터 보도 기준 뉴욕장에서 159 엔대까지 밀리며 거의 다섯 달 만에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은행의 9 월 인상 확률이 60%까지 높아졌다는 교도통신 보도에도 엔이 오히려 약세를 보인 점은 다소 이례적이며, 이 흐름이 실제 자산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부분이다. 금은 안전자산 수요와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며 1.10% 오른 온스당 4,389.25 달러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 이슈로는 인텔이 150 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반도체주 약세를 이끌었고, 반대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아폴로글로벌·블랙스톤 등 월가 대형 자산운용사들과 5,000 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조달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일 낮 마감한 아시아 증시는 닛케이(+2.08%), 항셱(+1.05%), 코스피(+0.65%) 모두 강세로 마쳤는데, 이는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과 미 금리 재상승 이전의 흐름이어서 오늘 개장에서 이 재료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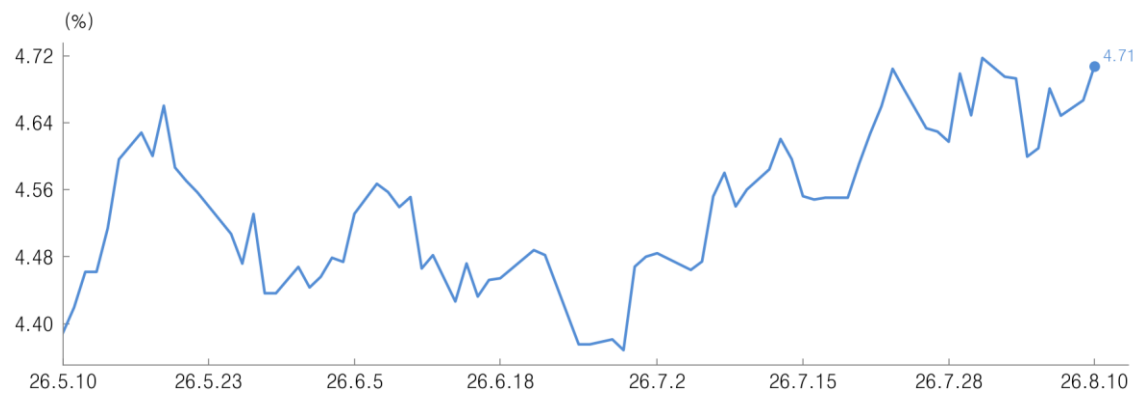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53.11	-0.06%	8/10 종가
	나스닥	26,605.35	-0.32%	8/10 종가
	STOXX 600	660.46	+0.03%	8/10 종가
	닛케이 225	66,970.00	+2.08%	8/10 종가
	CSI 300	4,702.02	+0.16%	8/10 종가
	KOSPI	6,299.66	+0.65%	8/10 종가
	항셍	25,937.49	+1.05%	8/10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81	+0.20%	8/10 종가
	달러/엔	159.23	-0.03%	8/11 종가
	유로/달러	1.15	-0.01%	8/11 종가
	달러/원	1,417.66	+0.73%	8/10 종가
	달러/위안	6.74	-0.03%	8/10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05%	+5.6bp	8/10 종가
	미국 2 년	4.243%	+4.4bp	8/10 종가
	일본 10 년	2.820%	+3.1bp	8/10 종가
	독일 10 년	3.184%	+5.8bp	8/10 종가
	한국 10 년	4.241%	+4.3bp	8/10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0bp	-1.0bp	8/7 종가
원자재	WTI	82.13	+5.05%	8/10 종가
	금	4,389.25	+1.10%	8/10 종가
	구리	6.62	+0.38%	8/10 종가
변동성	VIX	15.45	+3.76%	8/10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미국 뉴스 29 건 HIGH	• 호르무즈 해협 협상 난항, 유가 4% 이상 급등 ↳ 이란·오만이 해협 재개 계획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상 요구(전쟁·테러·시위 피해배상)로 맞서며 협상 난항 ↳ 지난 금요일 약한 고용지표에도 에너지 공급 차단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82.13 로 5% 근처 상승 • 미국 통신청(FCC), 대중국 기술 제재 본격화 — 드론·라우터·로봇 수입 금지 ↳ 브렌던 카르 FCC 의장 주도로 지난 9 개월간 중국산 신규 모델 제품(드론·라우터·인버터·로봇 등) 수입 금지 ↳ 중국 과학기업에 대한 전면 차단 절차 진행,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스펙트럼 경매 중심이던 통신청이 핵심 역할 담당 • 월가 주가 약세, 호르무즈 협상 불안감 속 인텔 주가 하락 ↳ S&P 500 -0.06%, 나스닥 -0.32%, 다우지수 -0.11% 약세 마감 ↳ 인텔, \$150 억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주가 하락, 반도체 섹터 전반 약화 • 연준 내 금리 정책 기조 엇갈림, 9 월 인상 확률 50% 수준 유지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해머랙, '지금이 점진적 금리 인상 시점'이라며 인상 옹호 — 9 월 이후 '여러 차례' 필요성 언급 ↳ 워시 연준 의장은 가이던스 축소 기조를 지속하며 시장에 금리 결정권을 위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 월 인상 확률을 52%로 평가(지난 금요일 약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67%에서 하락) ↳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될 7 월 소비자물가(CPI) 가 연준의 다음 결정을 좌우할 핵심 지표 • 달러 강세·엔화 급약세, 달러 인덱스 99.80·엔화 159.14 엔/달러로 거의 5 개월 만의 최대 낙폭 ↳ 달러 인덱스 +0.20%, 유로 \$1.1542 로 -0.13%, 엔화 159.14 엔/달러로 -0.84% 약화되며 거의 5 개월 만의 최대 일일 낙폭 ↳ CFTC 데이터상 엔화 숏 포지션이 2014 년 3 월 이후 최대 규모로 축소, 유가 상승과 CPI 발표 대기 속에서 안전자산 엔화 약세 지속 • 트럼프, 존스법 면제 90 일 연장 — 외국선박 허용하되 조건 추가 ↳ 존스법 면제로 외국선박의 미국 항구 간 운송을 일시 허용, 이란 분쟁 속 국내 연료비 부담 완화 ↳ 이번 연장은 조선소·의회 동맹의 반발을 반영해 이전보다 범위를 축소하고 조건을 추가 • 월가 거인 투자사 컨소시엄, 엔비디아와 \$5000 억 규모 AI 기반시설 자금 조성 추진 ↳ 아폴로 글로벌, 블랙스톤, 블랙록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브룩필드 애셋 관리, 골드만삭스, KKR 등이 엔비디아와 함께 \$5000 억 펀드 조성 추진 ↳ 엔비디아가 AI 붐의 기반이 되는 칩·전력·데이터센터 자본 조달을 주도 • 미국 채권 약세, 금요일 랠리 부분 반등 —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유가 상승 압력 ↳ 미국 채권이 유럽 채권시장과 동조해 약세, 2 년물-10 년물 스프레드는 46.2 베이스포인트로 확대되며 베어 스티프닝(수익률곡선 가팔라짐) 현상 ↳ 주간 소비자물가(CPI)·생산자물가(PPI)·소매판매 통계 예정, 인플레이션 지속성 우려 반영

권역	요약
EM 기타 뉴스 18 건 HIGH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예측 12% 삭감, 러시아 오데사 항만 공격 탓 ↳ 농업부장관: 2026/27 시즌 수출 목표 3,800 만~4,000 만 톤으로 하향 조정(이전 4,300 만 톤) ↳ 7 월 말 러시아의 항만시설 공격으로 사실상 수송이 중단된 이후 첫 공식 수정 ↳ 오데사 항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생명줄이자 글로벌 식량안보에 중요한 중추 •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 난항, 이란의 추가 배상금 요구로 걸프 주식 혼조 ↳ 이란-오만 협상 진행 중이나 미국의 과거 공격에 대한 이란의 추가 배상금 요구로 합의 불명확 ↳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석유·액화천연가스 교역량의 1/5 운송, 공급 불안 심화 우려 ↳ 이란 연계 후티세력의 추가 공격 위협도 남아있어 에너지 시장 불안 장기화 전망 • 신흥시장 중앙은행 리더십 불안정 심화, 터키는 외화보유액 적극 증대 ↳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 Naji Issa, 사임 의사 표명(사유 미공개) ↳ 레바논: 前 중앙은행 총재 Salameh, 前 Bank Audi 총수 Hanna 와 함께 대규모 횡령 혐의로 기소 ↳ 터키 중앙은행은 이와 대조적으로 주간 \$50 억 외화 매입 단행, 순보유액 \$630 억(↑\$90 억), 총보유액 \$1,780 억(↑\$140 억) • 신흥시장 물가 압력 불균형, 이집트는 가속·우크라이나·탄자니아는 온건 유지 ↳ 이집트 코어 인플레이션 7 월 14.7% y/y 로 상승 (6 월 14.3%), 가격 압력 지속 ↳ 우크라이나 소비자 인플레이션 7.7% y/y (전쟁 속 상대적 안정세) ↳ 탄자니아 인플레이션 4.2% y/y (역내 온건 수준) • 러시아 자본유출 선별화 신호: 터키 PKK 평화 법안 통과; 이집트 세금 기반 수쿠크 승인 ↳ 러시아 민간기업의 7 월 순 외화 매각 \$222 억으로 19.9% 감소(6 월 \$277 억), 수개월 내 최저 수준 ↳ 터키 의회 PKK 평화 프로세스 법안 통과(468 석 찬성/600 석), 前 무장세력원 법적 보호 및 사회 복귀 경로 제공 ↳ 이집트 대통령, 세금 기반 이슬람채(수쿠크) 발행 승인, 납세자 자금으로 조성 후 향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 건	• 미국·유럽 주가 약세, 호르무즈 협상 불확실성·인플레이션 전망에 압박 ↳ 미국 다우·유럽 주요지수 하락, 연준 금리정책 경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주요 압박 요인 ↳ 석유 강세(브렌트유 +0.9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 전 미국의 다수 요구사항 충족을 주장 — 공급 리스크 상승 ↳ 금주 미국 소비자물가(CPI) 발표 예정, 통화정책 경로 결정의 핵심 신호 • 달러 강세 확대, 일본은행 인상 논의 속 엔화 약세 심화 ↳ 달러지수(DXY) +0.18%, 달러-엔 환율(USD/JPY) +0.68% — 달러 회복 우위 ↳ 일본은행 9 월 인상 가능성 강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1.5 년 만에 적자 전환으로 엔화 약세 구조화 ↳ 유로/파운드 소폭 변동(EUR/USD -0.03%, GBP/USD +0.04%) — 달러 중심의 통화 재편 • 독일 부동산·무역 약세 속 유로존 투자자 심리 개선 신호 ↳ 독일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취약한 회복 후 재악화), 구조적 약세 신호 ↳ 독일-중국 무역 적자 확대(중국의 유럽 산업 의존도 감소) — 독일 수출 부진 지속

권역	요약
	↳ 유로존 투자자 심리 8 월 긍정 전환(Sentix 설문) — 거시 약세 신호와 대비되는 심리 개선
유럽 뉴스 2 건	• 올여름 유럽 폭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현실화 ↳ 폭염이 야기하는 비용·생활 방식 변화가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경제 현실로 체감 • 호르무즈 협상 부진으로 유로존 수익률 상승 반전 ↳ 지난주 금요일 유로존 정부채권 수익률의 6 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 → 월요일 상승 전환 ↳ 약한 미국 데이터와 호르무즈 협상 진전 기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보상 및 추가 조건 이행 재차 강조
중국 뉴스 7 건	• 중국 중앙인민은행, 15 차 5 개년 계획에서 위안 환율 안정·국제화·금융 개방 공약 ↳ 위안 환율 기본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 무역·투자에서 위안화 비중 확대 추진 ↳ 기초화폐 공급 메커니즘 개선, 통화·신용정책의 총량적·구조적 기능을 극대화해 소비 진작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채권시장에 기술 부문(테크보드) 신설, 거시건전성·금융안정 기능 확대, 핵심 부문 금융리스크 해소 추진 • 도이체뱅크, 유럽 금융기관 최초로 중국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 유럽의 금융기관·기업이 위안화 거래의 결산·청산·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됨 ↳ 중국 현지 금융시스템·자본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 통로 개설로 위안화 거래 편의성 향상 • 중국, 미국·멕시코산 피칸 수입에 54.3% 보증금 부과 — 오늘부터 시행 ↳ 피칸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조치 단행 ↳ 멕시코 정부 즉시 반발, 조치 중단을 위한 대응 추진 계획 발표 ↳ 지난해 멕시코의 피칸 수출액 약 1,092 만 달러
일본 뉴스 3 건	• 일본은행(BOJ) 긴축 신호에도 엔화 약세 — 정책 신뢰도 의심 ↳ 시장의 9 월 금리인상 확률 60%, BOJ 정책결정자 일부가 더 빠른 인상 선호 표시 ↳ USD/JPY 급등(157.23→158.89)에도 투자자의 정책 신뢰 의심 해소 안 됨 — 미국, 9 월 인상 신호에 개입 개시(교도통신) ↳ 리스크 선호 확대, 유가 2% 이상 상승(이란의 호르무즈 최후통첩), 저금리에 따른 엔화 매도 압력이 겹치며 약세 지속
인도 뉴스 4 건	• 루피 약세 압력 지속, RBI 의 적극적 달러 매도 개입으로 추가 낙폭 억제 ↳ 전일 루피가 95.30 까지 약화했으나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그 이상의 하락 저지 ↳ 유가(브렌트유) 상승이 루피 약세 압력으로 계속 작용 — 인도의 석유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외환 유출 압력 지속 ↳ 시장 참여자들이 루피 약세 포지션의 신규 진입을 꺼리는 중 — 중앙은행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 인도 국채 보험 마감, 미국 약한 고용지표와 유가 상승이 상충 ↳ 벤치마크 6.94% 2036 채권 수익률이 6.7643%로 보험 마감 ↳ 미국 7 월 고용이 23,000 명 예상 밖 감소 → 연준 9 월 인상 확률 42%(이전 67%)로 하락하며 채권 매수 심리 일부 지지 ↳ 유가 상승이 인도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 국채 약세 압력과 상충하며 상승폭 제한

권역	요약
브라질 뉴스 4 건	• 브라질 중앙은행, Pix 를 해외 즉시결제 시스템과 연계 추진 ↳ Pix 가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목 대상이자 新 관세 정당화 근거 ↳ 양자 협력 및 다자간 허브 참여로 국경 간 송금의 수수료·거래 속도·접근성·투명성 개선 기대 • 브라질 경제학자 설문, 2026 년 인플레이션 5.02%·기준금리 13.75%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IPCA): 2026 년 5.02% (이전 5.03%), 2027 년 4.22% (동일) ↳ 기준금리(SELIC): 2026 년말 13.75%, 2027 년말 12.00% (변화 없음) ↳ 2026 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8% (이전 1.99%에서 소폭 하향)
남미 기타 뉴스 4 건	• 칠레, 어제 코델코 2025 년 수익 100%를 회사로 재투자 결정 ↳ 광업부 장관 다니엘 마스 발표 ↳ 코델코 정상 구조는 수익을 정부로 귀속한 후 정부가 필요분만 자본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이나, 이번은 2025 년 수익 100% 전량을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전환 ↳ 목표: 무거운 채무 부담 완화 및 노후 광산 시설 개선 • 콜롬비아 강진 후 COLCAP -0.51% 하락, 페소는 역설적 강세 ↳ 어제 월요일 강진으로 최소 20 명 사망, 광범위한 피해 발생 ↳ COLCAP 지수 -0.51% 하락, 달러 표시 채권도 하락 ↳ 페소(COP)는 강한 달러 대비 +1.09% 상승으로 지역 통화 중 최고 상승률 기록, 라틴아메리카 주식은 -0.26% 약세(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 반영)
프론티어 뉴스 4 건	• 루마니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6.50% 유지로 추가 인상 보류 ↳ 인플레이션이 목표밴드(1.5%~3.5%) 내로 복귀하는 시점을 2027 년 말로 재조정, 기존 예상보다 한 분기 지연 ↳ 심각한 가뭄·글로벌 에너지 충격·재정적자 감축 지속성 불확실을 정책 연기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 ↳ 2-3 분기 경제활동이 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 일 신규 물가전망 공시로 정책 신호 확인 필요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